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문집 30년만에 다시 부르는 노래 (유신독재를 넘어 민주로)

- 엮은이 : 긴급조치9호 철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 추진위원회
- 펴낸이 : 이상경
- 펴낸곳 : 자인
- 발행일 : 2005년 5월 13일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 안암골의 침묵을 깬 '78년 9월 14일



천 상 만 고려대 행정학과 75학번, 대우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교회성장연구소 부소장, 새사람선교회 목사, 중앙성결교회 목사(현), 한국생산성본부 교수(현)

나를 포함한 세 명의 고려대생이 주도한 1978년의 9.14 고려대 데모 사건은 75년 긴급조치 발동 이후 처음으로 고려대 학내에서 성공적으로 터진 시위였다. 이 사건은 일본의 아사히 신문 등에서 크게 소개되었다.

### 9.14 고려대 데모

내가 대학 4학년 때였던 1978년은 박정희 유신정부 말기 시절이었다. 70년대 들어서 계속 되어 오던 민주화 운동은 70년대 중반 이후 세력이 더욱 커졌으며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 되고 있었다. 대학시절 내가 주로 속해 활동하였던 곳은 기독교 사회참여운동 그룹이었다. 주된 활동의 장이 고려대 기독교학생회(SCA)와 기독교학생연맹(KSCF)이었다. 학교 밖으로는 새문안교회 대학부, 경동교회와 크리스찬 아카데미, 산업선교회, 기장선교교육원, 야학 및 농활 등이었다. 특히 새문안교회 대학부는 당시 기독교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던 핵심 그룹 중 하나였다. 특히 이 시절 박형규 목사, 문익환 목사 등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토론하였다.

당시 나는 교회와 연계를 맺으면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가지려는 그룹에 속해 있었다. 그 결과 나는 1978년 가을, 4학년 2학기를 맞으면서 그대로 졸업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이미 그 때는 학생운동권의 리더로 자리잡았던 때였다. 몇몇 동료 친구들은 이미 감옥에 가 있던 상태였으므로 나도 당연히 그들의 뒤를 이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런 생각으로 긴급조치 이후 3년 간 학생 시위가 일어나지 않았던 고려대에 시위를 촉발시키는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데모 모의에 참가한 이는 나와 동료 두 사람이었다. 나는 그 때 행정학과 4학년 이었고, 동료 이해자 씨는 생물학과 4학년, 오상석 씨는 경제학과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나와 이해자 씨는 고대기독교학생회(SCA) 활동을 같이 하였던 사이였다. 오상석 씨는 당시 민족연구회라는 이념서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오랜 동안 서로를 잘 알고 지낸 사이였다.

세 사람은 언젠가는 학교를 졸업하지 않고 학생운동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생각들을 굳히고 있었다. 7월경부터 구체적인 데모 방법 및 역할 분담, 장소 선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세 사람은 서로 신뢰하는 사이였지만 보안에 극도로 신경을 썼다. 그리고 디-데이만을 기다리며 준비해 갔다. 디-데이가 9월 초나 중순이 될 거라고 감지한 나는 학교 생활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당시 대학에는 데모가 있을 거라는 정보가 있어서 항시 기관원이 상주하고 있었다. 누가 불만 붙이면 시위가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 구로동 야학의 수돗물 홍수

우리 세 사람은 1978년 9월 13일에 시위를 할 예정이었다. 나는 그 당시 우리를 잘 알고 신뢰하던 민족연구회 회원 이승환(경제과 3년)에게 9월 13일에 데모가 터질 거라고 말하였다. 그가 나에게 9월 13일이 좋겠다고 미리 얘기했던 점으로 보아 그가 서울대의 어느 사람과 날 짜를 맞추었다고 생각했다. 9월 12일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남대문 시장에서 가리방과 먹지, 종이를 구입하여 가방에 넣고는 사당동으로 향하였다. 우리는 사당동에 있는 희망교회에 가서 가리방을 굶었다. 당시 희망교회는 정명기 전도사와 강명순 사모가 사당동 산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회를 하던 곳이었다. 나는 그곳을 야학과 관련한 일로 몇 차례 방문했다. 강 사모는 나를 동생처럼 대해주었다. 그곳에서 먹지에 가리방을 굶고 등사를 해서 유인물을 몇

백장 만들었다. 그 유인물을 가방에 담아 넣고는 새문안교회 대학부가 운영하던 구로동야학으로 갔다. 그곳에는 잠잘 수 있는 방이 있었다. 그곳에서 9월 12일 밤을 자고 다음 날 아침 학교로 향할 예정이었다. 9월 12일 밤 우리는 그곳 야학 방에서 잠을 잤다.

9월 13일 새벽이었다. 자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줄줄줄 수도물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놀라 일어나 보니 건물 바닥 전체에 물이 흥건히 고여서 아예 강을 이루고 있었다. 우리 세 사람은 깜짝 놀라 달려 나갔다. 바닥에 놓아 두었던 유인물 뭉치는 이미 물 속에 잠겨 있었다. 놀란 나머지 한쪽에 있던 수도꼭지를 잠그고 유인물을 들고 살펴보았으나 젖지 않은 것이 없었다. 망연자실한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한숨을 쉬었다. 유인물 없이 데모를 촉발시키기는 어려웠다. “이 무슨 뜻이란 말인가?” 우리는 그 날 서울대에서 데모가 터질 수 있다는 감만 있었지 확실히 약속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직접 나서서 말을 맞춘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었다. 유인물을 다시 제작하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간적으로 몇 백장을 몇 시간 내에 다시 등사하기는 불가능했다. 우리는 할 수 없이 9월 13일 데모를 포기하고 말았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날 밤에 왜 수도물이 흘러나왔을까?” 우리 중 누군가가 잠자기 전에 수도꼭지를 잠그지 않았던가? 그 때 우리는 각자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 어느 누군가가 수도꼭지를 틀어 놓았는데 낮에는 물이 나오질 않아 몰랐는데 밤에만 물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던 것 같다. 나중에 안 얘기지만 9월 13일의 서울대 데모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으로 들었다. 당시 가난한 동네의 수도물 사정이 우리의 데모 다-데이를 하루 늦추게 하고 말았다. 우리가 만일 9월 13일에 데모를 하였다면 미리 정보를 입수한 기관원들에 의해 실패로 끝났을지 모른다. 하루 늦추어졌기 때문에 성공했는지 모른다.

### 오랜 침묵을 깨고 올려 퍼진 데모가

9월 14일 아침, 우리 세 사람은 각기 맡은 장소로 향하였다. 나는 본관 건물을, 혜자 씨는 서관 건물을, 상석 씨는 공대 쪽 건물을 맡았다. 나는 오전 10시 경 본관 2층 교실로 들어갔다. 그 수업은 이윤영 교수의 상법 수업시간이었다. 그런데 그 교실에 들어갈 무렵 당시 내가 알기로 프락치 학생 - 학생 신분이었지만 기관원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던 역할을 하였다 -

으로 알고 있었던 모 씨가 그 수업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 그가 몹시 신경에 거슬렸다. 그가 무슨 쪽지를 쓰는 것만 같았다. 나는 수업 시간에 30분 정도 앉아 있었다. 그리고 11시 경 수업 중이었던 교실에서 나와 복도로 접어들었다. 그 때 “고대 건아야, 일어나라!”는 소리를 지르면서 가방 속에 있던 유인물을 집어 들고 밖으로 열려있던 2층의 몇 개 교실 창으로 유인물을 집어 던졌다. 갑자기 이 교수님이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어떤 놈이야!”라고 소리 지르셨다.

나는 “교수님 죄송합니다!”라고 응답하면서 “강당으로 모이랴”는 소리를 계속 질러 댔다. 그러면서 복도와 교실 창문으로 유인물 수십 장을 뿌렸다. 학생들이 동요하기 시작했다. “나가자!”라는 구호가 몇 군데서 들렸다. 학생들도 누군가가 데모를 터트릴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다. 십시간에 서관 쪽으로 학생들이 떼를 지어 몰려들었다. 그들 중 일부는 스크럼을 짜고 몰려들었다. 나는 계속 소리를 지르며 가방 속에 있던 남은 유인물을 모두 교정에 뿌리며 서관으로 갔다. 이해자 씨가 역할을 맡았던 서관 쪽도 성공한 것 같았다.

학생들이 몰리는 것이 확인해졌다. 서관 앞에 이를 때 긴장한 기관원 둘인가 나를 둘러쌌다. 그러더니 한 기관원이 나의 허리띠를 짊 움켜 잡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야 이 새끼야!”라고 하며 나를 가로 막았다. 그러자 옆에 있던 몇몇 학생들이 기관원을 향해 달려들었다. 그들은 “죽여!”라고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는 누군가가 몸을 날리더니 발로 기관원을 향해 차는 것이었다. 몇몇 사람이 따라서 달려들자 기관원은 내 허리춤을 놓고 도망가고 말았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기관원에게 끌려가고 말았을 것이다.

이미 분위기는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나가자 폭풍같이’라는 고대 응원가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일단 나는 서관 앞 단층 독립 건물인 대형 강의실로 쓰이는 강당에 들어갔다. 족히 삼사백 명은 됴직한 학생들이 모였다. 나는 앞에 나가 유인물을 읽기 시작했다.

유인물에는 유신헌법의 부당성과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수많은 학생과 양심적 지식인이 투옥되어 있는 현실을 고발하였다. 그리고 민중들의 생존권 주장을 탄압하는 독재정권을 타도해야 한다고 외쳤다. 살아있는 지성의 전당인 대학이 더이상 침묵해서는 안 되며, 민족대학으로서 고대가 이제는 일어나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5분여에 걸쳐 유인물을 읽어가자 학생들이 계속 들어왔다. 유인물 읽기를 마치자 모두 스크럼을 짜고 교내를 돌자고 외쳤다. 그리

고 건물 밖으로 나가자 삼시간에 수백 명이 스크럼을 짜고 학생회관 방향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였다.

교내를 돌며 ‘유신 철폐’, ‘독재 타도’를 외치며 달리자 동조하는 학생들이 더 붙었다. 그때 맨 앞에서 스크럼을 짜며 돌던 사학과 4학년의 친구 김 이수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상만 아! 이 정도 했으면 너는 뺏으니까 이제 빠져”라고 하였다. “지금 네가 잡히면 좋지 않으니까 나하고 같이 튀자!”라고 하였다. 이미 경찰 병력이 학교앞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그의 권유를 받아들였다. 이해지와 오상석의 형편이 어쩐지 알지 못했지만 김이수가 나를 잡아당기며 끌었다. 나는 그와 함께 사범대 뒷쪽을 통해 고대 정내를 빠져 나가 뒷산을 통해 돈암동 쪽으로 뛰었다.

### 구속과 감옥행

저녁쯤 집에 공중전화를 걸어 어머니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집에서도 난리가 난 듯 했다. 형사들이 나를 잡으러 지금 집에 와 있다는 것이었다. 얘기를 들으니 학생들이 정문 수 위실을 불태웠다고 했다. 나는 곧 전화를 끊었다. 나는 데모 후 언행되어 갈 계획이었지 도망 갈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김이수에게 성북서로 가겠다고 얘기했다. 데모 다음 날 나는 성북서로 갔다. 나를 조사한 형사는 나를 전에도 조사하였던 김모 형사였다.

그는 “드디어 일을 저질렀구만!” 하면서 나의 무릎을 꿇렸다. 나를 때렸지만 이미 몇 차례 안면이 있었기 때문인지 그렇게 무자비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그곳에서 며칠간 조사받은 후 구속되었다. 서소문에 있는 검찰로 이송된 후 그곳에서 최초 공안담당 검사를 만났다. 그는 무뚝뚝하게 “왜 쓸데없는 일을 벌리고 다니지, 너희가 그런다고 정부가 흔들릴 줄 알아?”라며 질책하였다. 이미 그들은 이런 시국사범 학생 일에 익숙하면서도 진저리가 날 만큼 뒷처리를 하고 있던 사람들이었다.

### 재판과 최후 진술

나는 78년 9월말 서대문구치소에 입소하게 되었다. 내가 구치소에 들어가면서 받은 번호는 2729번이었다. 이름 대신 번호로 통하는 곳에 온 것이다. 구치소에 들어온 이후 조사차

검찰로 두어 번 더 갔었다. 그곳에서 검사와 나는 이야기는 데모를 준비하던 과정, 데모에서 하였던 역할 등에 대한 확인 질문과 대답 정도였다. 검사는 우리에게 반성문을 쓰고 재판 때 개전의 정을 보이면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당시 시국사범들에게는 국선 변호인이 딸렸다. 홍성우 변호사가 우리 사건을 맡았다.

구치소에서 한번 그분을 뵈었다. 데모의 주동은 세 명이었지만 성북서에 잡혀간 고대생들은 수십명이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긴급조치 위반으로 10여 명이 기소되었다. 그들 모두는 학교에서 제적당하고 감옥을 살아야 했다.

그해 겨울에 접어들면서 재판 출정을 하게 되었다. 법정에서야 함께 수감된 동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오랜 만에 보는 얼굴들이었다. 반가와서 얘기를 나누려고 했으나 교도관들은 서로 말 나누는 것을 적극 저지하였다. 우리는 2, 3회에 걸쳐 재판을 받았다. 당시 재판정에는 교회와 학교 서클 등에서 많은 동료, 선후배들이 와서 재판정을 메웠다. 그들은 재판이 끝날 무렵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을 격려했다. 박수를 치기도 하였다. 외롭지 않게끔 지지하고 있으니 힘내라는 얘기였다.

### 감옥 안 시위

1978년 12월경, 재판을 마치고 돌아오던 무렵 나는 오상석 씨로부터 은밀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 연말이 되는 모일 오전 6시에 감옥 안에서 구호를 외치는 시위 계획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니 같이 하자는 것이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긴장이 되었다. ‘감옥 안에서 시위를 하면 되게 혼쫓이 날텐데’라는 두려움이 들었다. 당시 서대문구치소 안에서 이런 구상을 처음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당시 구치소 안에는 몇십 여명의 긴급조치 위반 사범들이 수감되어 있었다. 여러 학교의 대학생들이 있었고 교수, 언론인, 목사, 정치인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들 간에 어떠한 연락망이 구성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나한테까지 연결되어 온 것이었다. 그날이 가까와지자 나는 고심했다. 또 다시 각오를 하고 소리를 지르는 시위를 하느냐 마느냐였다. 결국 ‘이미 이곳까지 온 마당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냐’로 결론을 내고 그 날 고함 시위에 동참하기로 결심하였다. 당시 나는 경제법 사에서 합방 상태로 지내던 때였다. 정확

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하나 그 전날 밤 나는 마음에 각오를 단단히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기상 전에 눈이 뜬 나는 6시경이 되자 화장실로 갔다. 그곳에서 기다리는데 6시 쯤 되자 갑자기 뺑기통 창문을 통해 ‘긴급조치 철폐하라’ ‘구속인사 석방하라’ ‘독재정권 물러가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몇 군데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들리는 소리였다. 나도 창문에다 대고 ‘긴급조치 철폐하라’는 소리를 질러댔다.

### 우주유형 고문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났다. 그러더니 갑자기 교도관들이 황급히 달려오는 발 소리가 들렸다. 교도관 두셋이 들어오더니 화장실의 나를 잡아 끌어냈다. 나는 그 방에서 끌려나오면서도 ‘유신헌법 철폐하라’는 소리를 질렀다. 교도관들은 내 입을 막고 내 팔을 비틀면서 나를 끌고 갔다. 나는 더이상 소리 지르지 않고 따라갔다. 교도관들은 나를 어느 큰 방으로 데리고 가더니 그곳에 무릎 꿇렸다. 이미 그곳에는 몇몇 사람들이 끌려와 있었다. 책임자급 되는 사람이 “너희들 본때를 봐야겠느냐!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하였다. 그러더니 나를 둘러싼 몇몇이 포승줄로 어깨와 팔을 묶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릎 꿇은 상태에서 발과 팔을 밧줄로 푹푹 묶기 시작했다. 팔은 비틀어서 뒤로 한 채 손을 머리 위로 끌어올려 묶고, 다리는 무릎을 굽힌 채 얼굴 부근으로 끌어올려 온몸을 칭칭 밧줄로 감는 것이었다.

그들은 나를 동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푹푹 묶는 것이었다. 온 몸이 비틀어지는 것 같았고 호흡하기가 힘들었다. 이미 옆에 있는 어떤 학생들은 울기 시작했고 살려달라고 애원할 정도였다.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여기에서 더한 상태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 상태로 동그렇게 사람을 말아서 푹푹 묶은 위에 검은 담요를 덮어 씌우는 것이었다. 그리고 담요를 몸과 함께 묶어대는 것이었다. 숨이 확 막혔다. 진짜 죽을 것 같았다. “야! 이게 진짜 사람을 죽이는 고문이로구나”하면서 나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아예 정신을 잃은 것 같았다. 그런 상태로 몇 분이 지난 후 그들이 담요를 벗기고 포승줄을 풀어주기 시작했다. 몇 군데에서 엉엉 우는 소리가 들렸다. 반장쯤 되는 사람이었던 같다. “너희들 또 다시 할 테냐! 그 때에는 진짜 지금보다 더한 맛을 보여 주겠다”는 것이다. 그리고는 반성문과 각서를 쓰라고 하였다. 쓰기까지 내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때 각서를 썼던 것으로 기억

한다. 다시는 소리지르는 등의 시위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었던 것 같다.

나중에 알고보니 그 고문은 교도소 내에서 벌칙으로 자주 쓰이는 ‘우주유형’이라는 것이었다. 주로 폭력범이나 교도소 내에서 규정을 어기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에게 버릇들이는 과정에서 사용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이 경험을 치르고는 방으로 돌려보내졌다. 당시 나와 같은 몇 명이 그 고문을 당하였던 것으로 안다. 방으로 돌아온 얼마 후 나를 끌고 갔던 담당 교도관이 왔다. 별로 독방으로 옮긴다는 것이었다. 독방으로 옮겨진 후 교도관이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네었다. “나로서는 미안한데 우리로서도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너무 미운 감정으로 대하지 말아 달라”는 얘기였다. 나는 그냥 씩 웃었다.

### 당신이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옷이 미워요

그일 이후 나는 독방에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교도관이 “자기를 미워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떠올랐다. 그때 감명깊게 보았던 영화 ‘닥터 지바고’의 한 장면이 떠올랐다. 닥터 지바고가 모스크바로부터 추방되어 혁명 적군과 반혁명 백군이 싸우고 있는 시베리아로 보내질 때의 장면이었다. 우랄 산맥의 설원을 가로 질러 가는 시베리아 열차가 일시 정차하였을 때 지바고는 산 속을 거닐다가 적군에게 잡히게 된다.

그리하여 적군대장에게 잡혀가는데 그는 이미 지바고를 알고 있었던 악명 높은 스트렐리니코프 장군이었다. 스트렐리니코프는 지바고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제 러시아에 개인 생활이란 없다. 감정, 연민, 아름다움 이런 용어는 더이상 필요 없다”면서 “당신의 그 퇴폐적이고 자본주의적인 정서를 버리라”고 다그치자 지바고는 장군을 뺨히 쳐다본다. 그러자 스트렐리니코프가 지바고에게 “왜 내가 죽이고 싶도록 미우냐?”고 묻는다. 그 때 지바고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당신이 미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그 말이 밉다”라고 하였다.

그 때 지바고가 했던 영화 속의 얘기가 내 머리에 떠올랐다. 나는 우주유형 고문을 당한 그 날 나를 독방으로 옮긴 교도관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다. “나를 미워하지 말라고 했지만, 나는 당신이 미운 게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그 제복이 밉다”라고 말하고 싶었다. 자기의 사와는 상관없이 명령에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 당시 교도관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

이 그런 구조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다.

### 형 확정과 이감, 석방

1심 최종 판결 때 최후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 나는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다. “나는 비교적 어렵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났고 부모님의 뒷바라지로 대학까지 와서 공부하게 되었다. 그런데 내가 대학에 와서 내 또래의 수많은 젊은이들을 만나 보니 사람 대접을 못받고 사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들의 자리에 서보니 그들을 도와주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간절히 들었다. 그래서 노동현장에도 가봤고 여름에는 농활로 여러 군데의 농촌을 다녀 보았다. 그런데 이들이 외치던 생존권 요구는 억압되기만 하였고 정부는 가진 자들 편만 드는데 이런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을 계속 잡아두니 이것도 잘못된 것이다. 나도 이런 분들의 생각과 주장에 동감하여 함께 동참한 것뿐이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나의 최후진술은 이념적인 내용이 아니었다. 순수했던 마음을 솔직하고도 강하게 털어놓았다. 다른 동료들도 비슷한 내용으로 말했다. 최후진술 이후 검사로부터 3년 징역을 구형받았다. 나머지 다른 동료들도 1~3년 정도를 구형받았다.

결심 공판에서 나는 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해자, 오상석 씨도 같았다. 나머지 동료들은 1년 내외의 형을 받은 것으로 안다. 우리는 서로 말을 나누지 못하도록 통제받았기 때문에 그냥 얼굴만 보고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항소하기로 하였다. 다시금 항소시 반성문을 쓰면 형 기간이 참작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러나 반성문은 쓰지 않았다. 1심 확정이 나고 난 후 석달 정도 후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다시 받았다. 나는 2심에서 1년 6월로 형 기간이 줄어들었다. 당시 긴급조치 위반 사범은 고등법원에서 형을 받으면 더이상 대법원 재판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그리하여 79년 봄 미결수에서 기결수가 되었다.

79년 늦은 봄 무렵에 이감을 가게 되었다. 닭장 차에 실려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서대문을 떠났다. 도착해보니 그곳은 전주교도소였다. 그곳에서 입소절차를 마치고 특수사로 가게 되었다. 어느 독방으로 보내졌는데 어찌나 넓은지 10평은 족히 되는 것 같았다. 교도소에 오니까 대접받으며 지내게 되네 하며 놀랐다. 아침마다 세면하러 가거나 운동시 복도를 지나다니며 보았는데 좌측 편으로 아주 조그만 방이 20여개 정도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하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사상범들을 수감하는 곳이었다. 그중에는 6.25 때부터 수형 생활을 한 빨치산 출신도 있었다. 우편으로 큰 방이 쪽 있었는데 그곳에 있던 분들은 남민전 관련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간혹 뒷창으로 그분들과 통방을 하기도 하였다. 소리가 잘 들리지는 않았지만 몇 분과 얼굴도 모른채 인사 정도의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그곳에서 두어 달을 보낸 후 나는 다른 사의 조그만 독방으로 옮겨지게 되었다. 왜 옮겨졌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으나 남민전 분들과 통방 때문이었던 것 같다. 새로 옮겨진 방은 정말 관만한 방이었다. 너무 좁고 불편했다. 누우면 발이 방 끝에 닿았고 두 팔을 다 벌리면 벽에 닿는 그런 크기였다. 그리고 내 방 바로 앞은 교도관이 지키고 있는 자리라서 꼼짝덜쭈할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곳에서 79년 한 여름을 보냈다. 그야말로 더운 여름에 관만한 방에서 몹시 힘든 감옥 생활이었다.

그러던 8월의 어느 날, 교도소 보안과장에게 갔더니 이번 8·15 특사 때 사면이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1979년 8월 15일 아침 나는 전주교도소를 나오게 되었다. 교도소 문을 나오니 아버지가 와 계셨다. 아침 햇살이 너무도 따뜻하였고 싱그러운 날이었다. 1년 가까운 감옥 생활을 마치고 자유의 몸으로 나온 것이다. 아버지는 나에게 두부를 먹이셨다. 전주에서 서울로 오는 동안 바깥 자연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나의 첫번째 감옥 생활은 그렇게 끝났다. 그러나 나는 80년의 봄 고대에 복학하였다가 5.18 사태로 다시 구속되어 두 번째 감옥을 살게 되었다.

지금 와서 그 때를 돌이켜 보면 내 속 어디에서 그런 독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 25년이 넘은 지금 나는 온유하다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나 그때 나는 투사였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싸우는 사람이었다. 어디서 그런 투지가 나왔는지, 어떻게 그런 시기들을 견디어 냈는지 모르겠다. 사람이란 역시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모양이다. 서슬이 퍼렇던 유신 시절 사람들 앞에 나서 민주화를 외친다는 것은 댓가를 치를 각오 없이 어려운 일이었다. 시대의 흐름에서 볼 때 개인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다.

78년의 고려대 9.14 데모 사건을 돌이켜 보면 당시 유사한 시도들이 실패로 끝난 사례들이 많았다. 그러나 9.14 데모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나름대로 철저한 준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보안 등에서의 치밀함, 오랫동안의 개인적 각오를 바탕으로 한 과감한 결행력

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싶다. 성공하는 거사란 이를 준비하는 주도 그룹들의 심사숙고와 치밀한 분석, 완벽에 가까울 정도의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결심한 것들에 대해 포기하지 않는 과감한 실천력이 뒤따라야 좋은 결실이 맺어지는 것 같다.

## 작은 개울로 시작하였으나



**김부겸** 서울대 정치학과 76학번.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 민주당 수석 부대변인, 국민통합추진위원회(통추) 조직부위원장,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경기·군포, 원내수석부대표)(현)

벌써 30년인가! 우리들의 꿈과 희망을 짓밟다 못해 말살하려던 거대한 권력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향한 최후의 일격, 긴급조치9호를 가한 그날이... 그 시절은 왜 모든 일이 그렇게도 신이 나지 않았던지! 막걸리와 쓴 소주는 왜 그리도 마시고 싶고 매일매일은 왜 그리도 힘겨웠던지!

시인이나 소설가의 펜을 빌리면 그래도 그럴싸한 그림이 그려질 텐데 1970년대의 어둡던 시절, 유신과 긴급조치시대를 떠올리면 아직도 우울하기만 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공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차치하고라도 숨이 막혔던 긴급조치시대의 굴곡진 모습이야말로 이제 똑똑히 역사에 새겨두어야 하리라. 그리고 어떠한 힘,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생각과 말을 묶어둘 수는 없으며, 어떤 억압의 쇠슬도 반드시 인간들의 목소리와 행동에 의해 부서지고 만다는 분명한 역사적 교훈 또한 함께...

긴급조치9호라는 게 스스로 절대자와 같아서 유신헌법은 커녕 그 조치 자체를 직접 비판하거나 비판을 타인에게 전파하는 행위조차 징역 1년 이상에 처하게 되어 있었다. 지금처럼 인터넷 매체의 무한한 언론 자유 속에서 살고 있는 이들은 짐작조차 할 수 없는 적나라한 국